

각양각색 아카데미 수상작을 만나다



지난달 막을 내린 제89회 아카데미영 화상 수상작들이 관객들을 만나고 있다. 흥미로운 소재와 배우들의 열연, 독특한 촬영, 아름다운 음악 등이 인상적인 작품들이다.

아카데미영화상 수상작들은 최근 국내 흥행과는 별 연인이 없었다. 특히 작품상의 경우 성적이 저조했다. 지난해 수상작인 '노에 12년'은 49만명을 동원하는 데 그쳤다. '아르고'(2013·14만), '아티스트'(2012·12만), '허트 로커'(2010·17만) 역시 마찬가지였다.

작품상을 수상한 '버드맨'의 6일간 관람객은 약 14만명. 흥행에서는 다소 아쉬운 면이 있지만 흥미로운 작품으로 관객들의 입소문을 타고 있다.

이번 시상식의 최대 수혜자는 '버드맨' (청소년 관람불가)이었다. 작품상을 비롯해 감독상, 각본상, 촬영상 등 4개 주요 부문을 휩쓸었다. 9개 부문에 노미네이트되며 '버드맨'의 가장 강력한 라이벌로 꼽혔던 '보이후드'는 패트리카 아퀘트가 여우조연상을 수상하는 데 그쳤다.

'버드맨'은 슈퍼 히어로 버드맨으로 많은 인기를 누렸던 할리우드 배우가 예전의 꿈과 명성을 되찾기 위해 브로드웨이 연극에 도전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브로드웨이와 할리우드의 이면을 거침없이 파헤치며 날카로운 풍자를 선보이는 블랙 코미디다.

'버드맨'은 마치 한편의 연극을 보는 느낌이다. 주인공의 시선을 따라가며 롱테이크로 담아낸 화면은 긴장감과 함께

한편의 연극같은 '버드맨' 고풍스런 흑백화면 '이다' 폭발적인 드림 연주 '윌 플레쉬' 등 잇따라 개봉



이미테이션 게임

색다른 경험을 준다. 촬영상을 수상한 작품답다. 시종 일관 배경에 깔리는 드림 연주가 극의 박진감을 높이며 무대 뒤 백스테이지 모습도 흥미롭다. 아주 극적인 스토리는 없지만 시간 가는 줄 모를 정도로 몰입도가 좋은 작품이다. 주인공이 무대에 올리는 레이먼드 커퍼의 작품 '사랑을 말할 때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들'도 궁금해진다.

'사랑에 대한 모든 것'의 에드윈 메인 에고 남우주연상을 다했던 마이클 키튼

의 연기가 발군이다. '나오미 왓츠, 에드워드 노튼, 엠마 톰슨 등 조연들의 연기도 좋다.

각색상을 수상한 '이미테이션 게임'은 10일 현재 153만명을 돌파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군의 에니그마 암호를 해독한 수학자 앨런 튜링의 삶을 드라마틱하게 재구성한 작품이다.

오랜 시간 철저하게 역사속에서 사라진 인물을 복원해내는 과정이 흥미롭다. 현재 수학자, 동성애자, 자살로 마무리

된 비극적인 삶에 이르기까지 '영화같은' 이야기를 품고 있는 주인공이 인상적이다. '셜록'으로 유명한 베네딕트 컴베치의 연기는 긴 여운을 남긴다. 실제 역사적 사실과 영화적 장치로 추가된 상황들을 찾는 재미도 쏠쏠하다.

외국어 영화상을 수상한 '이다'는 이미 50여개가 넘는 영화제에서 수상한 작품이다. 서원식을 앞둔 예비 수녀 안나가 처음 만난 이모와 함께 부모와 자신의 비밀을 찾아가는 이야기를 그린 로드 무비다.

1960년대를 폴란드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흑백영화로 요즘 영화에서는 만날 수 없는 4대 3 비율의 화면이 인상적이다. 특히 등장인물을 화면의 끄트머리에 배치, 여백미를 살린 장면 장면은 한 장의 사진같다.

모차르트의 교향곡 41번 '쥬피터'를 비롯해 클래식과 재즈를 넘나드는 음악은 흑백의 고풍스런 화면과 어우러지며 진한 여운을 남긴다.

12일부터는 '윌플레쉬'가 상영된다. 남우조연상, 편집상, 음향상을 수상하며 3관왕에 오른 작품이다.

천재 드러머를 갈망하는 학생(마일즈 텔러)과 그의 광기가 폭발할 때까지 물아치는 폭군 선생(J.K. 시몬스)을 그린 드라마로 폭발적인 드림 연주자 인상적인 작품이다. J.K. 시몬스는 골든글로브, 영국 아카데미, 미국배우조합상 이어 아카데미 남우조연상으로 그랜드슬램을 달성했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봄날을 부탁해요"

광주 무각사 로터스갤러리

4월16일까지 기획전

무각사 로터스갤러리는 12일부터 4월16일까지 '봄날을 부탁해요'전을 연다. 봄과 닮은 지역의 화가 오경규, 한희원, 박태후 씨를 전시에 초청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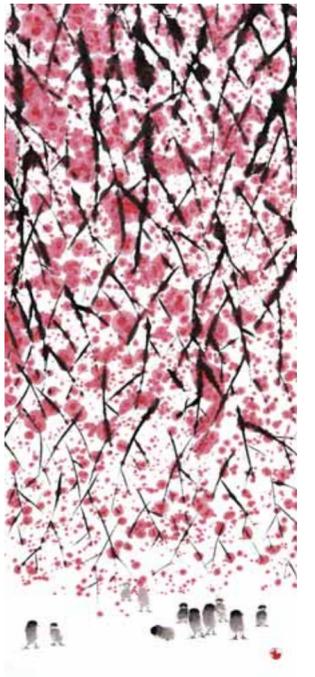
오씨는 먹빛의 담백함과 정밀한 붓질, 담백한 화면구성이 돋보이는 작품들을 전시한다. 매화, 동백 등 봄을 알리는 꽃을 통해 자연의 질서를 노래한다.

한씨는 오랜 세월 동안 한 겹씩 덧칠한 물감에서 느껴지는 특유의 색감이 돋보이는 작품을 선보인다. 물감을 두텁게 칠해 그린 작품들은 거칠면서도 자유로운 입체감이 아름다운 꽃을 피워낸다.

자연을 사랑하는 작가 박씨는 먹물의 힘찬 번짐으로 화사한 꽃잎의 향연을 만들어낸다. 그리고 박씨가 가장 사랑하는 소재인 참새가 더해져 작품에서 소박함이 느껴진다.

이번 전시를 기획한 이이남씨의 "따사로운 봄 햇살과 가장 닮아 있는 화가 세 분께 로터스 갤러리의 봄날을 부탁했다"라는 말처럼 작가들은 겨우내 얼어붙은 하얀 캔버스와 매서운 바람에 떨었던 가녀린 화선지에 봄 기운 가득한 작품을 풀어 놓는다. 문의 062-383-0070.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박태후 작 '자연 속으로'

광주 예술의 거리, 문화예술 발전소로

'장인에게 배우다' 수강생 모집

문인화·도예·전각 등 다양

광주 예술의 거리가 문화예술 발전소로 변모한다.

예술의거리활성화사업단은 예술의 거리에 있는 예술인들에게 미술, 음악, 공예 등 다양한 문화예술을 배우는 '장인에게 배우다' 수강생을 모집한다. 모집 기간은 13일부터 2주간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나비아 공동가자'를 주제로 오는 27일부터 11월6일까지 모두 18차례에 걸쳐 금요일 오후 3시에 진행된다. 광주시와 문화체육관광부가 공동 주최하고 (사)한국학호남진흥원과 동구문화원이 공동 주관한다.

'예술의 거리 장인에게 배우다' 아트스쿨의 특징은 예술의 거리에서 수십년 동안 예술혼을 이어온 장인과 예술가들에게 직접 배울 수 있다는 것이다.

분야는 ▲사군자 등 문인화를 배우는 동양화와 사군자 ▲원근 명암 묘사기법 등을 배우는 서양화 ▲통기타와 보컬 ▲사진



예술의 거리에서 '창안당'을 운영하는 김재섭씨는 전각 기술을 강습한다.

촬영기법을 배우는 사진기술 ▲도자기공예 ▲전각(낙관) 공예 ▲규방공예 ▲가족공예 ▲포크아트공예 등이다. 수강인원은 강좌마다 20명 이내로, 선착순 무료(재료비 별도)다. 문의 062-223-0137.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모임이 있으신가요? 귀한 손님 대접하시는지요?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에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건강한 한정식으로 즐거운 만남이 완성되는 곳!

- 부담없는 가격의 내 집 처럼 편안한 객실
- 30년 전통 광주음식명가 한정식 아리랑하우스
- 각종 모임을 위한 대소 연회장
- 300가지 와인을 즐길 수 있는 카페 보네르
- 맞춤형 출장도시락

연회장

세미나

가족모임

상견례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

계림동 홈플러스 건너편

예약문의 (062)525-2111

www.geumsoojang.com

각종모임은 전통있는 아리랑하우스

이태리 가구 40% OFF SALE

www.hong79.com(홍친구닷컴) 신상품 다량 포함

광주광역시 동구 장동로터리 58-15(동구청옆) **가구빌딩** ☎ 1899-0240 이태리가구 직수입 판매 3월 19일까지